<h1>나 혼자만 레벨업-95화</h1>  
  
  
 <div class="u2e9062b6af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95화</p>  
<p>기자들에 둘러싸인 진우는 심히 당황스러웠다.</p>  
<p>'이 사람들, 찍으라는 이민성은 안 찍고 왜 내 앞에서 이러고들 있어?'</p>  
<p>혹시 뒤에 이민성이라도 있나 싶어 잠깐 돌아보았지만 뒤쪽엔 백윤호, 최종인 두 사람뿐이었다.</p>  
<p>그때 허벅지가 떨려 왔다.</p>  
<p>우우웅- 우우웅-</p>  
<p>주머니에 넣어 둔 핸드폰이었다.</p>  
<p>'진아가 이 시간에 전화를?'</p>  
<p>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동생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.</p>  
<p>-오빠! 오빠가 TV에 나와!</p>  
<p>당연히 그렇겠지.</p>  
<p>여기 있는 방송국 카메라만 몇 댄데. 어떤 채널을 돌려도 마찬가지일 거다.</p>  
<p>학교에 있을 동생의 전화라 잠깐 긴장했던 진우는 한숨을 돌렸다.</p>  
<p>"음... 별일은 없지?"</p>  
<p>-별일? 지금 그런 말이 나와? 재각성은 뭐야? 또 S급은 뭐고?</p>  
<p>목소리를 들어 보니 애가 많이 놀란 것 같긴 했다.</p>  
<p>하지만 여건상 하나하나 차분히 설명하고 있을 상황이 못 되었다.</p>  
<p>"오빠가 지금 좀 바빠서... 나중에 집에서 얘기해 줄게."</p>  
<p>-오빠? 오빠?</p>  
<p>오빠를 애타게 찾는 동생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진우는 전화를 끊었다.</p>  
<p>띠릭.</p>  
<p>그리고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알게 되었다.</p>  
<p>'...메시지가 와 있었네.'</p>  
<p>헌터협회는 어플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준다.</p>  
<p>보통은 A급 이상의 던전 위치나 던전 브레이크 발생 장소 등을 알려 주지만, 오늘은 달랐다.</p>  
<p>'허.'</p>  
<p>메시지를 확인한 진우는 빠르게 협회 사이트에 접속했다.</p>  
<p>아니나 다를까.</p>  
<p>S급 자격증에 잉크가 아직 마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최상급 헌터 목록이 갱신되어 있었다.</p>  
<p>[성진우, S급, 마법계열]</p>  
<p>헌터중에 적힌 그대로였다.</p>  
<p>'...이런 건 또 쓸데없이 빠르네.'</p>  
<p>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구겨 넣은 진우는 앞을 바라보았다.</p>  
<p>"성진우 씨! 협회 소속이었던 E급 헌터 성진우 씨 맞습니까?"</p>  
<p>"흔치 않은 재각성자가 되셨는데요!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!"</p>  
<p>기자들은 진우의 모습이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더 카메라에 담으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.</p>  
<p>그러나 기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진우에게 귀찮기만 할 뿐이었다.</p>  
<p>'일단 여길 좀 벗어나긴 해야겠는데.'</p>  
<p>공손히 비켜 달라고 해 봤자 먹히지도 않을 것 같고.</p>  
<p>진우의 눈썹이 꿈틀거렸다.</p>  
<p>그냥 그림자 병사들을 불러내서 길을 뚫고 나가 버려?</p>  
<p>"여기요! 성진우 씨, 이쪽도 좀 봐주시죠!"</p>  
<p>"성진우 씨! 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, 한번 웃어 주기라도 해 주세요!"</p>  
<p>점점 가까워지는 카메라 렌즈들과 마이크들 앞에서, 진우는 진짜 '탱크'나 '어금니' 같은 그림자 마수병들을 불러낼까 2초 정도 진지하게 고민했다.</p>  
<p>진우의 뒤편.</p>  
<p>기자들에게 가로막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진우를 보고 있던 최종인.</p>  
<p>그가 백윤호에게 다가갔다.</p>  
<p>"아무래도 우리 신입 헌터님께서 지나친 관심에 곤란해하시는 거 같은데."</p>  
<p>"누구 맘대로 성진우 헌터님이 댁네 신입이라는 겁니까?"</p>  
<p>"농담도 못합니까, 농담도."</p>  
<p>또다시 눈싸움을 주고받던 두 사람.</p>  
<p>결국 최종인이 한발 물러났다.</p>  
<p>한숨을 내쉰 그가 말했다.</p>  
<p>"어쨌든 여기서 시간이 끌리면 다른 길드에게도 기회를 주는 꼴이 될 겁니다."</p>  
<p>백윤호도 동의했다.</p>  
<p>이민성 때문에 우연히 여기 오게 된 사신 길드 마스터 임태규는 물론이고, 남은 두 대형 길드들도 성진우 헌터와 접촉하기 위해 혈안이 됐으리라.</p>  
<p>백윤호가 기자들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"그러니까 최 대표님 말씀은..."</p>  
<p>"파리들이 냄새 맡고 몰려오기 전에 우리 두 사람이 성진우 헌터님을 댁까지 모셔드리자는 거죠. 가면서 같이 이야기도 할 겸."</p>  
<p>괜히 라이벌 늘릴 필요 없이 두 사람이 힘을 모으자는 것이다.</p>  
<p>성진우 헌터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 상급 던전을 돌려면 길드는 꼭 필요할 테니, 오늘 잘만하면 백호나 헌터스 둘 중 한곳에 S급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었다.</p>  
<p>최종인은 자신이 이끄는 헌터스에 자신이 있었고.</p>  
<p>"좋습니다."</p>  
<p>백윤호도 나쁘지 않았다.</p>  
<p>백호가 헌터스 만큼 크지는 않아도 충분히 비전이 있는 길드인 데다.</p>  
<p>'우리 안 과장과 현 대리는 훨씬 이전부터 성진우 씨와 알고 지냈단 말이지.'</p>  
<p>적어도 헌터스보다는 더 밀접한 관계라는 확신이 있었다.</p>  
<p>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.</p>  
<p>묘한 눈빛을 주고받은 두 사람은 방향을 틀어 진우에게로 다가갔다.</p>  
<p>먼저 말을 건넨 사람은 백윤호였다.</p>  
<p>"헌터님."</p>  
<p>진우가 돌아보았다.</p>  
<p>"예?"</p>  
<p>선수를 뺏긴 최종인이 속으로 혀끝을 찼지만, 협력하자는 약속대로 훼방을 놓지는 않았다.</p>  
<p>백윤호가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어보이며 말을 이었다.</p>  
<p>"기자들이 몰려와서 난처하시죠? 저희가 댁까지 편안하게 모셔드릴 테니 같이 가시죠. 이런 일은 또 저희가 전문이거든요."</p>  
<p>다소 과장이 섞여 있긴 해도 빈말은 아니었다.</p>  
<p>S급 헌터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 본 일인 데다, 대형 길드를 운영하며 사람들의 관심에 어떻게 대처해 하는지 배웠기 때문이다.</p>  
<p>최종인도 거들었다.</p>  
<p>"저희와 같이 가시죠. 가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."</p>  
<p>하지만 진우는 두 사람의 친절을 웃으며 거절했다.</p>  
<p>"괜찮습니다."</p>  
<p>그리고 후드티에 달린 모자를 푹 눌러썼다.</p>  
<p>"들러야 할 데가 있어서요."</p>  
<p>"예? 지금 사방에 기자들이 쫙 깔렸는데 어떻게 빠져."</p>  
<p>최종인은 말을 잇지 못했다.</p>  
<p>휘익!</p>  
<p>기자들 쪽으로 돌아선 진우가 수십 미터를 뛰어올라 그들의 반대편에 착지해 버렸기 때문이다.</p>  
<p>"어, 어?"</p>  
<p>진우는 당황한 기자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인파 속에 섞여 사라져 버렸다.</p>  
<p>최종인은 할 말을 잃었다.</p>  
<p>S급인 자신조차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던 움직임이었다.</p>  
<p>일반인인 기자들이 눈으로 좇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.</p>  
<p>최종인은 실소를 흘렸다.</p>  
<p>'S급 헌터로 등록되자마자 슈퍼맨 놀이입니까?'</p>  
<p>저런 운동신경을 가지고서 마법계열 헌터라니.</p>  
<p>같은 마법계열 헌터로서 열 받는 일이었다.</p>  
<p>그럼 전투계열 S급의 눈에는 방금 그 모습이 어떻게 비쳤을까?</p>  
<p>"방금."</p>  
<p>물어보려고 백윤호에게 고개를 돌리던 최종인이 흠칫 놀라며 반사적으로 물러섰다.</p>  
<p>"백 사장, 당신 눈이?"</p>  
<p>너무 놀라 존칭도 잊었다.</p>  
<p>"아...! 미, 미안합니다."</p>  
<p>백윤호는 황급히 한 손으로 눈을 가리며 돌아섰다.</p>  
<p>잠시 후 다시 그가 눈을 떴을 땐, 괴물 같은 눈동자가 아닌 인간의 눈동자로 돌아와 있었다.</p>  
<p>그러나 눈동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충격까지 가신 건 아니었다.</p>  
<p>'어떻게 이럴 수가...'</p>  
<p>백윤호는 몸을 떨었다.</p>  
<p>방금 진우가 점프하기 위해 다리에 힘을 주었을 때, 그가 숨기고 있던 마력이 잠깐 모습을 드러냈었다.</p>  
<p>아무리 뛰어난 헌터라 할지라도 그 찰나를 간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.</p>  
<p>그러나 강한 마력에 백윤호는 자신의 능력, 맹수의 눈을 본능적으로 꺼냈고, 그 눈은 진우의 힘을 감지하는 데 성공했다.</p>  
<p>'강하다.'</p>  
<p>그가 강하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이었다.</p>  
<p>하지만.</p>  
<p>'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'</p>  
<p>전에 한번 레드 게이트 앞에서 그와 실랑이가 붙었을 때, 본의 아니게 맹수의 눈을 뜬 적이 있었다.</p>  
<p>그때 백윤호는 진우의 힘을 눈에 새겼다.</p>  
<p>분명 강했다.</p>  
<p>아무리 자신이라 해도 팔 한쪽 정도의 희생이 없으면 이기기 어려울 정도로.</p>  
<p>하나 그뿐이었다.</p>  
<p>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면 언제든 이길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이다.</p>  
<p>그런데 지금.</p>  
<p>이 강함의 차이란 무엇인가?</p>  
<p>그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마력이 느껴졌다.</p>  
<p>그는 강해졌다.</p>  
<p>그때보다 훨씬.</p>  
<p>재각성이라면 이미 오래 전에 끝났을 텐데.</p>  
<p>대체 왜?</p>  
<p>순간 백윤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말도 안 되는 가설이 떠올랐다.</p>  
<p>'설마 그는... 성장할 수 있는 건가?'</p>  
<p>어쩌면 그는 재각성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...</p>  
<p>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을 때.</p>  
<p>"이봐요, 백 사장. 당신 괜찮습니까? 안색이..."</p>  
<p>최종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.</p>  
<p>백윤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고개를 휙휙 저었다.</p>  
<p>"갑자기 머리가 좀 어지럽네요. 이젠 괜찮습니다."</p>  
<p>"젊은 사람이... 조심하셔야죠."</p>  
<p>백윤호는 최종인과 대화를 계속하면서도 줄곧 진우가 사라진 방향으로 시선을 향했다.</p>  
<p>'이미 평범한 S급을 넘어선 그가 여기서 더 힘을 키울 수 있다면...'</p>  
<p>부르르.</p>  
<p>백윤호는 전율에 몸이 떨려 왔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"택시."</p>  
<p>기자들을 따돌린 진우는 한적한 도로에서 택시를 잡아탔다.</p>  
<p>원하던 대로 S급 자격증을 손에 넣었다.</p>  
<p>레벨업도 좋고, 던전도 좋지만,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은 어머니의 치료였다.</p>  
<p>'생명의 신수...'</p>  
<p>정말로 '생명의 신수' 아이템이 어머니를 낫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.</p>  
<p>'하지만 천분의 일, 아니 만분의 일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...'</p>  
<p>최대한 빨리 악마성 던전을 클리어하고 재료를 모아 '생명의 신수'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.</p>  
<p>그러기 위해선 악마성의 열기에서 몸을 지켜 줄 아티팩트가 필요했다.</p>  
<p>진우는 뒷좌석에 앉으며 목적지를 말했다.</p>  
<p>"한국 헌터옥션요."</p>  
<p>백미러로 진우를 힐끔 쳐다본 택시 기사는 싱긋 웃었다.</p>  
<p>"뭐 좋은 거 파시러 가나 봅니다. 헌터옥션에서 거래하는 물건들은 최소가가 수천 단위라면서요?"</p>  
<p>진우는 대답 대신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.</p>  
<p>꿀꺽.</p>  
<p>기사는 침을 꼴깍 삼켰다.</p>  
<p>헌터옥션에 뭔가를 팔러 간다는 소리는 당사자가 헌터라는 이야기고, 헌터를 상대할 때는 특히 조심 해야 하니까.</p>  
<p>헌터 중에는 가진 힘만큼이나 성격이 괴팍한 사람이 많았다. 잘못해서 시비라도 붙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.</p>  
<p>'저 청년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어쨌든 조심하는 게 좋겠지.'</p>  
<p>기사는 진우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물었고, 덕분에 택시 안이 조용해졌다.</p>  
<p>진우는 헌터옥션에 가는 막간을 이용해 인터넷을 뒤져 보았다.</p>  
<p>인터넷 기사나 SNS, 포털 커뮤니티 등등 어느 곳 할 것 없이 전부 다 새로운 S급 이야기뿐이었다.</p>  
<p>아침까지만 해도 검색어 순위 1위가 이민성이었는데, 지금은 10위권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.</p>  
<p>쯧.</p>  
<p>진우는 혀끝을 찼다.</p>  
<p>'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했는데.'</p>  
<p>어느 정도의 관심은 생각했었지만, 이렇게까지 뜨거울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.</p>  
<p>하긴.</p>  
<p>한국에서 딱 10명.</p>  
<p>그것도 죽거나 한국을 떠난 사람을 포함하면 여덟 명이 전부인 S급인데 어떻게 반응이 뜨겁지 않을 수가 있을까?</p>  
<p>'그런데 왜 차해인 때는 조용했지?'</p>  
<p>아홉 번째 S급이었던 차해인은 언론에 거의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, 진우는 자신도 그렇게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다.</p>  
<p>해서 이리저리 검색해 보니 차해인은 S급이 되고 난 뒤 협회에 정보보호를 요청했다고 한다.</p>  
<p>'협회에 요청만 하면 언론이고 길드고 법적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게 되네.'</p>  
<p>이런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협회장님은 알려 주시지 않았을까?</p>  
<p>아.</p>  
<p>진우는 검사장으로 가면서 들었던 질문을 떠올렸다.</p>  
<p>협회장이 물었다.</p>  
<p>"생각해 둔 길드가 있으십니까?"</p>  
<p>"아직은요."</p>  
<p>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였나?</p>  
<p>정보보호를 신청하면 길드에서도 접근할 수 없기에 협회장이 따로 말하지 않은 듯했다.</p>  
<p>'그럼 이건 됐고.'</p>  
<p>진우는 온라인으로 협회에 정보보호 신청을 접수해 두고, 한국 헌터 옥션에 전화를 걸었다.</p>  
<p>띠릭.</p>  
<p>-한국 헌터옥션입니다.</p>  
<p>"아티팩트를 감정받고 싶습니다. 지금 헌터옥션으로 가는 중인데 괜찮겠습니까?"</p>  
<p>-물론입니다. 그런데 감정받으시려는 아티팩트는 어떤 종류입니까?</p>  
<p>"마법을 증폭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구슬입니다."</p>  
<p>-아, 증폭 효과가 있는 마법구... 그런데 효과를 정확히 아시는 걸 보니 어디 다른 곳에서 감정받은 적이 있으신 물건인가 보군요.</p>  
<p>"그렇긴 한데 공신력이 없는 곳이라서 헌터옥션의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."</p>  
<p>-하하, 잘 생각하셨습니다. 저희만큼 아티팩트의 가치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곳이 없죠.</p>  
<p>뭔가를 적는 듯 잠깐 끊겼던 대화는 잠시 후 재개됐다.</p>  
<p>-이전 감정에선 증폭 효과가 얼마나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?</p>  
<p>"100퍼센트."</p>  
<p>-예?</p>  
<p>"100퍼센트의 증폭 효과가 나왔습니다."</p>  
<p>-...</p>  
<p>목소리는 잠시 뒤 흘러나왔다.</p>  
<p>-죄송합니다만, 혹시 판매자분은 헌터신가요?</p>  
<p>"네."</p>  
<p>-원활한 감정을 위해 판매자분의 신원이 필요합니다. 등급과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?</p>  
<p>진우는 입꼬리를 올렸다.</p>  
<p>'이럴 줄 알았지.'</p>  
<p>E급 헌터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아티팩트를 판다고 한다면 헌터옥션 측에서 상대나 해 줬을까?</p>  
<p>이 순간을 위해서 재심사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.</p>  
<p>진우는 담담하게 말했다.</p>  
<p>"S급. 성진우입니다."</p>  
<p>=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